

GGM 직원 주거시설 확보 '청신호'

(광주글로벌모터스)

市,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전략주택' 공모 선정

羨시장 "주거비 확대·근로복지기금 조성 속도"

전국 최초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직원들의 주거시설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GGM 직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거 지원 등 이른바 사회적 임금으로 보완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광주시는 11일 "광주글로벌모터스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300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지역전략주택 건립 공모사업이 국토부로부터 최종 선

정됐다"고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전략주택은 광주송정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부터 국토부와 LH가 800억원(국토부 640억원·LH 160억원)을 투자해 1만㎡의 부지에 300호 규모의 통합 공공임대 형식으로 건립된다.

특히 국토부와 LH가 공공임대 형식으로 건립하지만 입주자 선정은 광주시장이 100% 정할 수 있어 지역전략사업과 GGM 직원의 주거 용도로 폭넓게 사

용할 수 있다.

전략주택이 건립되면 GGM 직원은 직장가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면서 보육·문화·체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내에 별도 시비 약 150억원을 들여 체육시설·도서관·어린이집도 건립할 계획이어서 GGM 직원들의 직장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지난 7월4일 GGM을 찾아 "광주시가 직원 여러분과 맺었던 주거 보장 등 사회적 합의를 그동안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사회적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지역전략주택 공모사업 선정으로 강 시장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물론,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임금 제공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는 지역전략주택 건립에 끝나지 않고 GGM 직원들에 대해 공동 복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비 20만원 지원 대상 확대·금액 상향 등 위해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직원 장학금·건강검진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76억원 규모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조속히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선강기자

광주시 666명·전남도 501명 5급 이하 인사

도의회도 17명 승진·전보인사

광주시와 전남도가 11일 5급 이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광주 666명(5급 130명, 6급 이하 536명·16일자), 전남 501명(5급 123명, 6급 이하 378명·12일자)이다. ▶인사 명단 18면

광주시는 지난 1일 자 조직 개편, 승진과 4급 이상 전보 인사에 이어 민선 8기 조직 정비를 마무리했다.

'내슈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를 내건 민선 8기 비전 실현과 속도감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적재적소 배치에 중점을 뒀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직원 희망을 반영해 조직 안정을 도모하고 광주전략추진단, 신활력추진본부, 경제창업실, 인공지능산업국 등은 조직

개편 취지에 맞춰 인적 구성을 새롭게 했다.

전남도의 경우 승진 인사는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업무 성과, 경력 등을 종합 반영해 팀장급 28명, 6급 이하 165명 등 총 193명이 승진자로 결정됐다.

특히 조직 개편을 반영해 반도체·레이저 등 첨단 전략산업과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국립의과대학 유치 등 민선 8기 역점 시책 사업 조직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5급 승진자 28명 중 8명(28%)이 여성 공무원인 점이 눈에 띈다.

전남도의회도 하반기 5급 이하 직원 17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발령 대상자는 승진 6명·전보 6명·전임 4명·휴직 1명이며, 직급별 승진자는 5급 1명·6급 4명·7급 1명이다. /김재정·박선강기자

광주시 건축상 공모...내달 16일 마감

광주시가 우수한 건축사와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26회 광주시 건축상 작품을 공모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건축사회가 주관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최, 광주시 후원으로 실시되는 공모전은 건축사 업무등록을 한 자의 작품으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에 한한다.

작품 접수는 광주시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모신청서와 기타 관련 서류(A0 사이즈 작품판넬 포함)를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건축사회 사무국(북구 무등로 255 4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

자메일(gjkira@empas.com)로 하면 된다.

공모 접수 마감 후에는 건축사, 대학교수, 건축적 공무원 등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2주간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공동주택 주거부문 ▲단독주택 주거부문 ▲리모델링 부문 등 5개 부문별로 최우수작 1점, 우수작 1점씩을 선정한다.

공모에서 입상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시공자에게는 상장, 건축주에는 동판이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건축상은 역대 공모전보다 출품 부문을 다양화했으며 상금도 상당히 많은 우수작품 출품이 기대된다. /박선강기자

재난 피해 도민 마음건강 되찾기 '총력'

道, 2020년 구례·곡성 호우 피해자 365명 집중 지원

전남도가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으로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감염병, 교통사고,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도민의 마음 건강 되찾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연구위원회는 연구활동을 완료하면 10일 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복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복구위원회의 해당 조례는 올해 1월13일부터 시행, 이후 활동한 의원 연구모임이 없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과 보고서는 없었다.

김수영 서구의회 부의장은 "의원 연구활동과 보고서 등을 공개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제9대에서 의원들 연구모임이 생긴다면 향후 조례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곡성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과 2018년부터 2020년 전남을 덮친 링링, 프리패론 등 태풍 피해자 총 365명을 이달부터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을 바라면 목포 소재 전남도재난상담지원센터(1670-9512)나 도 사회재난과(061-286-3020),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2021년 재난피해회복지원조사' 결과 재난 경험 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재난 피해자가 도내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추진됐다.

지난해 재난피해회복지원조사는 2018년부터 2020년 발생한 전국 재난지역 피해자 3천10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남에선 365명이 이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주의·위험군으로 판정받았다. /김재정기자



광복의 그날을 기억하며... 제77주년 광복절을 내달 11일 오전 광주 북구청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함께 누리는 빛나는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문인 북구청장과 김흥수 북구의회의장이 시연자와 빛으로 광복절 기념 메시지에 마지막 점을 찍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예리기자

여순사건 희생자 163명 명예 회복 첫발

전남 실무위, 희생자 심사 중앙위에 첫 심의·결정 요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전남지사는)는 1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10·19사건 희생자 163명의 심사를 마치고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첫 심의·결정을 요청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실무위에서 신고·접수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월 까지 총 2천599건이 접수됐다.

이번 심사 대상의 경우 지난 7월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

규명을 받고 '여순사건 특별법' 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140건 ▲경찰서 보안기록, 군법회의 판결문 등 공적 증거자료가 있는 21건 ▲증명자료가 없어 보증서를 제출한 2건 등 총 163건이다.

위원들이 안건의 신고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모든 안건이 공식 심사를 통과했다.

실무위는 이번 심사를 통과한 안건의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수·순천 10·19사건 명예회복위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명예회복위는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

사·결정해야 한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신고접수 홍보 강화와 속도감 있는 조사로 희생자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도민들이 지금처럼 힘과 지혜를 모아준다면 화합과 상생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는 내년 1월 20일까지다. 진상규명 신고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로,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남도나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에 있는 명예회복위 지원단을 통해서도 신고·접수할 수 있다. /김재정기자

▶1면 '기초의회 연구모임'서 계속

광주매일신문

"생활광고 접수 안내"

▶광고국 ☎ 650-2099
650-2071~2, 650-2016(FAX)
▶사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광산이씨 관수정공파 임시총회 소집 공고

중종규약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광산이씨 관수정공파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08월 28일(일요일) 16:00(오후 4시)
2.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67(농성동) 치촌회관
3. 안 건
 - ① 제 1호 : 정관개정의 건, 법인설립의 건, 기타 안건
 - ② 제 2호 : 관수정공파 회장 해임 및 선임 건
 - ③ 제 3호 : 광주지법 2021가단 529481 소유권 이전등기 원고 이인필의 5명(이성갑 중원 형제들), 피고 광산이씨관수정공파 외1명(이성갑)
 - ④ 제 4호 : 광주지법 2022가단 51318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원고 이성갑, 피고 광산이씨 관수정공파
 - ⑤ 제 5호 : 제 3호와 제 4호 안건에 대한 백준홍 변호사 선임의 건
 - ⑥ 제 6호 : 소송관련 특별대리인 이종대 감사 임명의 건

2022년 08월 12일

광산이씨 관수정공파 특별대리인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임 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 상담▶

결차적 편의 법정기준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메인상권 빌딩급매

-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코너 유동인구 엄청
- 대지 810㎡ 9층건물
- 급매68억(보3억1,000월3,600)부가세별도

*** 주차뽕뽕, 월세뽕뽕, 월세는 지정일자에 통장바로 입금됩니다
돈 벌어주는 귀한 빌딩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은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